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교성* · 강철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의 사례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의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43.8%에 불과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취업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 기대기간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주제어 : 조건부수급자, 경제적 자활

* 김교성 : 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 강철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자들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인 탈 빈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들은 근로능력(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되고, 각각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수급자들을 근로에 참여시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생산적복지’ 혹은 ‘근로연계복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의 성과는 그리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과 분류과정은 비합리적이고 부정확하며, 취약한 근로유인체제로 인해 실질적인 자활사업 참여율은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 대상자 40,000명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는 2001년 10월을 기준으로 9,608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그 중 자활 성공으로 분류된 수는 4,560명뿐이었다(강병구·이상훈, 2002). 이러한 제한적 결과와 더불어 자활지원 전달체계는 취약하고 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여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우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례관리의 부족으로 자활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2001). 또한 제공되는 자활사업의 내용이 실업대책사업과 대부분 중복되어 자활사업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미흡함이 많다는 평가도 있다(노동부, 2002).

최근 들어 이러한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탐색적인 연구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와 더불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가 하면, 동시에 얼마나 빠른 시간에 경제적 자활의 상태로 진입하는가에 대한 분석, 즉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활 상태의 유지(취업이나 창업유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경제적 자활을 통해 취득되는 임금 등의 수입이 실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되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활사업대상자 개인과 가족, 직업 환경,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들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활사업의 역사가 일천하여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연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자료의 구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라는 제한된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등의 자활 가능성과 자활사업기간이라는 제한된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자활사업대상자의 경제

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취업과 창업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¹⁾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노동부, 2000),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 및 창업 등은 자활사업 목표의 첫 단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조건부수급자들이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활과 자립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취업 및 창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성공적인 취업 및 창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사람들 중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917명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경제적 자활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취업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에 진입한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수적 생존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취업 및 창업이라는 사건(event)까지의 시간(time) 측면, 즉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expected du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역동적인 영향력을 평가해 보고,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한적이거나 우리나라 자활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본 장에서는 자활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 가운데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welfare-to-work 프로그램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연구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본 장에서 정리하는 선행연구들은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점이 다소 달라 그 결과들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취업 및 창업 등을 통한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및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형성하는데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이라는 보다 조심스런 용어를 선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자활사업대상자들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제공된 자활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성공여부는 취업(창업)여부와 더불어 취업(창업)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또 그로 인해 취득되는 소득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가 파악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구성 상 취업(창업)여부라는 제한된 현상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적 자활의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미국의 welfare-to-work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

미국의 welfare-to-work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방식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연구 방식은 분석 단위를 프로그램에 두고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분석 단위를 개인에 두고 자활에 성공하는 이들과 실패하는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의 단위를 개인에 두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자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의 Martinson(2001)은 미국의 7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11개 welfare-to-work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적 평가 자료인 NEWWS(National Evaluation of Welfare-to-Work Strategies)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활의 핵심이 되는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 복지수혜자들(the most successful welfare recipients)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특성을 보이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도 취업에 성공적이지 못한 복지수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과거 고용의 경력도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복지 수혜 기간은 상대적으로 더 짧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취업과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즉 우울증, 가족에 대한 책임, 아동 보육의 책임 등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취업이 가장 힘든 복지수혜자들(the least successful welfare recipients)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나이 많은 자녀가 있으며, 중학교 이하의 학력 특성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도 매우 낮은 특징을 갖는다. 또한 이들은 복지 수혜의 경험도 길고, 과거 고용의 경험도 거의 없으며, 건강과 가족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 취업에 성공적인 수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인적인 장벽들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의 학력이나 기술의 보유와 같은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취업을 통한 자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동시에 복지수혜자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어려움(건강상태나 가족부양 및 아동보육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복지수혜의 지위로부터 경제적 자활의 상태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Olson과 Pavetti(1996)는 복지수혜를 받는 모(母)가 취업을 통해 자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수혜모의 건강상태임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실업과 건강상태의 정적인 관계에 대한 Kessler, Turner, House(1987)의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써, 복지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의 양호한 건강상태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빈곤 연구소의 Danziger와 그녀의 동료들(2000) 역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는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과 유사하다. 그들은 복지 수혜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시간 주의 빈곤 여성

들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추적 조사하여 구축한 WES(Women's Employment Study)자료를 분석하여 교육수준, 고용경험, 기술수준, 건강상태 등의 요인이 빈곤 여성들의 취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을 갖는 복지수혜자와 과거 고용의 경험이 없는 수혜자의 경제적 자활이 가장 어려우며, 직업 기술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의 문제가 더 심각할수록 경제적 자활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들의 연구는 경제적 자활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 중 건강 문제와 인적 자본의 취약함이 경제적 자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빈곤 연구소의 연구원들인 Kalil, Corcoran, Danziger 등(1998)은 4가지 형태의 연구(복지수혜로부터 경제적 자활로의 전이 과정을 추적하는 종적 연구, 고용주에 대한 연구, welfare-to-work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 연구, 복지수혜자들의 건강과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복지수혜를 받는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낮은 학력, 부족한 과거 고용 경험, 낮은 수준의 기술, 고용에 대한 준비 부족, 차별에 대한 걱정, 정신건강의 문제, 약물의 사용, 건강의 문제와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폭력의 문제 등과 같은 9가지 요인들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먼저 복지수혜로부터 경제적 자활로의 전이에 대한 종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낮은 학력, 부족한 과거 고용 경험, 가족 부양의 부담 등이 지속적인 취업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고용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낮은 수준의 기술과 낮은 학력과 같은 복지수혜자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가 취업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세 번째로 이들은 welfare-to-work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복지수혜를 받는 대부분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직장을 그만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을 보고 하면서, 복지수혜자들이 취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요인은 취업에 대한 준비 부족, 노동 윤리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지 않은 점, 차별, 건강, 가정 문제 등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복지수혜자들의 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복지수혜자들 자신과 자녀의 건강 문제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부양에 대한 부담 및 스트레스가 이들이 취업을 하는 것 그리고 취업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이들의 연구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활 상태로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9가지 요인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복지수혜의 지위에 있는 이들을 경제적 자활의 위치로 이끄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위에서 설명한 미국의 welfare-to-work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미국의 welfare-to-work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의 핵심적 내용	경제적 자활과 관련된 주요변수
Martinson (2001)	일을 찾는 복지수혜자들의 경험: 취업에 성공적인 이들과 취업이 힘든 이들의 특징	취업성공자의 특징 :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과거 고용경력, 짧은 복지 수급기간,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 내 어려움 취업이 힘든 자의 특징 : 나이 많음, 낮은 학력, 낮은 기술수준, 직장경험이 없음, 장기간의 복지수혜, 건강문제와 가족을 책임지는 어려움
Olson & Pavetti (1996)	복지수혜의 지위에서 경제적 자활 상태로 전이(welfare-to-work)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분석	장애요인: 복지수혜를 받는 모(母)의 건강
Sandra Danziger, et al (2000)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활에 이르는 것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관한 분석	장애요인: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 고용경험 없는 것, 낮은 수준의 직업기술, 건강 문제
Kalil, Corcoran, & Danziger (1998)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을 어렵게 하는 9가지 요인에 대한 정리	장애요인: 낮은 학력, 상대적으로 부족한 과거 고용경력, 낮은 수준의 기술, 준비부족, 차별걱정, 정신건강, 약물사용, 건강, 가정 스트레스, 가정폭력

2)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관련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기 이전 생활보호법 상의 자활보호 대상 가구의 빈곤 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강철희, 1997; 박병현, 1997,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 체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현행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그러한 탐색적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김수현(2001)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66가구, 차상위 계층 63가구, 법정모자가정 64가구 등 전체 193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그가 경제적 자활을 위한 주요 장애물로 제시한 요인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 문제, 전문 기술의 부족 문제, 이전 직업경력이 없는 문제,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문제, 미취학 자녀 보호의 문제, 학령기 취학자녀 교육의 문제, 치료를 요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족원 보호의 문제, 불안정한 주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소외감과 고립감 및 자신감 부족 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이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경제적 자활로

진입하는 경로에서 인적자본의 취약함, 사회심리적인 불안정함, 건강하지 못함 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와 가족원에 대한 보호책임과 같은 가족 관련 문제가 장애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경제적 자활이 되게 하게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적 요인 및 가족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동원되고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대상자 22명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저소득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활을 가능케 하는 방안 및 경제적 자활을 막는 장애요인에 관해 연구한 여성자활연구모임의 국미애, 김홍 미리, 안경연, 유연정, 윤박경(2001)은 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활과 관련되어 부각되는 문제로 낮은 교육수준과 전문 기술의 부족 그리고 이전 직업경력의 취약성, 저임금의 문제 및 불안정한 취업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서 자녀 보육의 문제, 질병을 갖는 자녀 및 가구원 간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낮은 자존감, 정서적 불안, 사회부적응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 역시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활과 관련해서 먼저 자활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에 초점을 두면서 실제로 자활의 과제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를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한 지원, 즉 자녀보육 지원, 간병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심리상담 및 교육 서비스, 법률적인 서비스 등이 취업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들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여성조건부 수급자들 324명을 대상으로 자활과 관련된 수급자들의 실태 및 자활의욕에 관해서 연구한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2002)은 먼저 실태분석에서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이 고연령, 저학력, 여성가구주로서 특징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한 인적자본의 취약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취학 자녀와 취학자녀를 대다수 갖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부담이 크고,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본인 및 가구원의 건강문제 및 정신건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실제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건강상의 문제나 적성과 능력의 문제, 혹은 가족과 자녀 양육의 문제와 저임금의 문제, 그리고 좌절감의 문제로 포기하고자 했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들을 경제적 자활로 이끄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이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경제적 자활로 가는 여정에 많은 장애물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자활의욕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자활의욕이 실제 자활과정에서 지속될 수 있게 장애물을 낮추는 서비스의 마련과 확충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 자활취업대상자 중 무작위로 추출된 참여자 505명과 사업이 종료된 554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강병구과 이상훈(2002)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활욕구, 가구별 특성, 지역특성(실업률), 자활사업 내용, 취업알선의 체계성 등의 차원에서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및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노동부 자활추진 실적 보고에 기초해 볼 때 취업 대상자 전체의 46.5%가 직업적응훈련을 받았고 직업훈련은 40.7%가 받아들당수가 직업 훈련을 통해 자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활사업종료자 중 18.2% 정도만이 취

업과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활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경제적 자활과 관련된 요인들을 교차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연령에 있어서는 30대와 40대에 있는 대상자들의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의 경우가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결혼 지위에 있어서는 기혼인 경우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세대주의 경우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거주지역의 경우는 중소도시 거주자의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다. 한편 주거에서는 전세, 월세에 있는 종료자의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보다 안정적인 거주를 갖거나 혹은 국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주형태를 갖는 이들에 비해 중간적인 거주 지위를 갖는 이들의 취업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직업에서는 과거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종사자인 경우의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고용형태에서는 임시직을 가졌던 경우에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취업이 더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정리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는 다소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의 차이, 즉 기존의 연구들이 여성 자활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나 이 연구는 자활취업대상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우리나라 자활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주요변수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자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에서 인식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자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활을 저해하는 요인들, 즉 장애 요인들에 대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제적 자활의 장애 요인들은 크게는 교육과 기술보유 등과 같은 인적자본과 관련된 요인들, 가족구성원의 양육과 보호 등과 같은 가족관련 요인들, 좌절감과 소외감 등의 사회·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요인들과 함께 일부 연구들은 자활의욕이 경제적 자활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과 경제적 자활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자료에 기초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다음에서 경제적 자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한 참여 자활지원사업의 종류 요인과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 우리나라 자활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경제적 자활과 관련된 주요변수
김수현 (1999)	저소득 여성가구주 자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의 실천과제	장애요인: 낮은 교육, 전문 기술 부족, 이전 직업경력, 직업훈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미취학 자녀 보호, 학령기 취학자녀 교육, 치료를 요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가족원 보호, 불안정한 주거, 건강, 사회·심리적인 문제
국미애, 김홍미리, 안경연, 유연정, 윤박경 (2001)	저소득층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	장애요인: 저임금과 불안정한 취업, 자녀 보육, 질병을 갖는 자녀 및 가구원 간병, 건강, 낮은 자존감, 사회·심리적 문제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2002)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장애요인: 건강, 인간관계, 적성과 능력, 가족 및 자녀보호, 저임금, 좌절감
강병구·이상훈 (2002)	자활참여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성에 관한 연구	취업 영향 요인: 연령(30대와 40대), 학력(고졸 이상), 세대주, 거주상태, 고용형태(임시직), 직업(사무직과 서비스직)

3.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가운데 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25개)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2,508개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원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자활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례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행하여 자활사업 참가요령,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정보와 대상자의 특성 및 자활욕구를 파악한다. 이때 1차 방문기한내 출석하지 아니한 취업대상자에게는 2·3차 출석을 통지하여 초기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불응시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읍·면·동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취업대상자 중 대상요건에 미달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자(예를 들어, 조건부수급자 분류기준 미달자 및 재활프로그램 적용 등 의학적·심리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판별하여 해당 읍·면·동에 재심사를 요청한다(노동부, 2000:18-19). 본 연구는 이러한 조건부수급과정에서 초기상담에 참여하지 않아 ‘불출석’으로 종료된 사례(943개)와 재심사결과 ‘대상자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종료된 사례(648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수급한 총 917개의 사례만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대상 수급권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와 경제적 자활 진입(취업이나 창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이다. 자활사업기간의 측정은 취업대상 수급권자가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일(day) 단위로 계산하였고, 2002년 2월 28일을 단절시점(censoring point)로 삼았다. 자활사업의 종료는 취업이나 창업과 같이 경제적 자활에 성공한 경우와 재심사부적격이나 수급권 탈락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중도탈락, 그리고 계획수립거부, 조건불이행, 기타(소재불명, 전출 등)의 자발적 사유에 의한 중도탈락에 의해 발생한다.²⁾ 생존분석에서는 자활사업기간과 사건(event)변수인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을 동시에 활용하는데, 사건변수는 취업 혹은 창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적 자활로 진입한 대상자에게는 1의 값을 부여하고 중도탈락이나 미취업한 대상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사건변수, 즉 취업 혹은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활사업 관련 변수, 그리고 취업능력 관련 변수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여부, 가구원수로 구성하였다. 이 중 성별은 남성에게는 1의 값을 여성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고, 가구주여부는 가구주에게는 1의 값을 비가구주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측정하였고, 연령(세), 교육수준(년), 가구원수(명)는 연속변수 형태로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자활사업 관련 변수들은 수급 자활사업의 종류와 자활사업 수급 개수로 구성하였다. 자활사업의 종류는 2001년 노동부 자활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인 ①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② 자활인턴, ③ 공공근로, ④ 자활직업훈련(창업훈련 포함), ⑤ 자활직업적응훈련, ⑥ 자영업창업지원 등의 6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의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사업이행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 중 2·3개의 자활사업을 수급 받은 대상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활지원사업변수는 대상자들의 최종자활지원사업 변수를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이 수급 받은 자활사업의 개수를 측정하여 '사업개수' 변수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노동부 자활지원사업에서 정의하는 취업이나 창업은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취업한 사람, 그리고 점포임대 등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업을 개시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재심사부적격 대상자는 자활사업 참가기간 중 비취업대상이나 비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기타 사유로 자활사업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수급권탈락 대상자는 가구원의 소득증가로 조건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의미한다. 계획수립거부 대상자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불응한 사람을 말하며, 조건불이행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7일 이상 불참하거나 연속으로 5일 이상 불참한 사람(직업훈련은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거나 단위개월내 5일 이상 결석한 사람, 다만 조건으로 제시한 자활사업이 비지속적인 사업일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조건부과회수의 1/3이상 불참한 사람)이나 각 사업별 지침에서 불이행 기준으로 정한 규정을 어긴 사람을 의미한다(노동부, 2000: 38-39).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취업대상자의 초기 상담과정에서 취업능력 평정표를 작성하여 특정 자활사업과 경로를 지정하는데, 본 연구는 취업능력 평정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된 것들 중 자격증, 건강상태, 취업욕구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³⁾ 자격증은 자격증소지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는 1의 값을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0의 값을 부여한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건강상태와 취업욕구는 초기상담과정에서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해 상담원이 판단한 것으로 건강상태는 보통미만(1), 보통(2), 양호(3), 매우 양호(4)로 구분되고, 취업욕구는 낮음(1), 보통(2), 높음(3)으로 구분된다. 이 두 변수는 연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술적인 분석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일반적인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정도와 자활사업 참여기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생존표 분석(Life-Tabl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경제적 자활 진입(취업 혹은 창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expected du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Accelerated Failure Time(AFT) 모델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AFT 분석모델들 중 Log-normal 모델, Weibull 모델, Exponential 모델, 그리고 Generalized Gamma 모델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에 가장 잘 결합된 모델을 선택하여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취업위험도(hazard)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Log-normal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Log-normal 모델을 선택하고 이 모델에 기초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Log-normal 모델의 사건발생 위험도(hazard)에 대한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log h(t) = \log h_0(te^{-\beta x}) - \beta x$$

4) 결측자료(missing data)에 대한 접근방법

본 연구는 원자료의 건강상태와 취업욕구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결측치(missing data)를 갖는 문

3) 취업능력 평정표에는 이외에도 연령과 직업경력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연령의 경우 36세 이상(1), 30~35세(2), 18~29세(3)로 구분되어 있고, 직업경력은 1년 이하(1)와 1년 이상(2)으로 구분되어 있다. 취업능력은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취업능력 평정점수를 산출하고, 10~13점인 자는 상으로, 7~9점인 자는 중으로, 6점 이하인 자는 하로 구분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자활사업과 경로를 결정한다(노동부, 2000: 24-25). 이들 변수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령은 이미 연속변수로 포함되어 있고, 직업경력과 취업능력 평정점수는 결측값(missing value)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multiple imputation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측치를 해결하는데 있어 과거에 많이 사용해 왔던 방법인 평균값을 대체시키는 방법이나 혹은 다중변인모형(multivariate model)에서 예측된 값을 대체시키는 multivariate method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관측된 자료로부터 결측치 자료에 대한 유효한 추론을 얻을 수 있는 multiple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multiple imputation 방법은 Markov Chain Monte Carlo Approach인데 이 방법은 이전 분포에 의존하는 관계에 기반해서 의사난수추출(pseudo-random draws)들을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즉 이러한 방식의 multiple imputation은 관측된 자료의 확률분포가 주어진 상황에서 결측 자료의 조건확률 분포로부터 m 독립추출 $Y_{mis}^{(1)}, \dots, Y_{mis}^{(m)}$ 을 생성시키는 방법이다. 이때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P(Y_{mis} | Y_{obs}) = \int P(Y_{mis} | Y_{obs}, \theta) P(\theta | Y_{obs}) \pi(\theta) d\theta,$$

여기서 $P(\theta | Y_{obs})$ 는 관측된 자료의 확률함수 $P(\theta | Y_{obs}) = \int L(\theta | Y_{obs}) \pi(\theta) dY_{mis}$ 와 이전 (prior) 확률밀도함수 $\pi(\theta)$ 의 생성물에 의존하는 구성을 갖는다. 그리고 m 독립추출을 생성시킨 후에 각각의 추출은 Rubin의 방법에 의한 standard complete-data method에 의해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multiple imputation이 적절한 추론을 얻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imputation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측 자료에 대해서 5개의 독립적인 complete-data를 추출하였고, Rubin의 법칙에 기반 하여 추출한 5개의 독립자료 세트로부터의 결과를 결합하였다.

이러한 imputation 방식에서 결측 자료 변수와 관련된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는 건강상태 변수의 결측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imputation 모델에 연령, 성, 장애여부를 포함시켰고, 취업욕구 변수의 결측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multiple model에 연령, 성별, 장애여부, 가구주 여부, 가족수를 포함시켜 결측 자료에 대한 대체값들을 얻어내었다. 본 연구는 결측 자료 변수에 대한 multiple imputation 방법에 의한 대체값 구성을 위해 앞서 설명한 실험적 절차를 가능케 하는 SAS v.8.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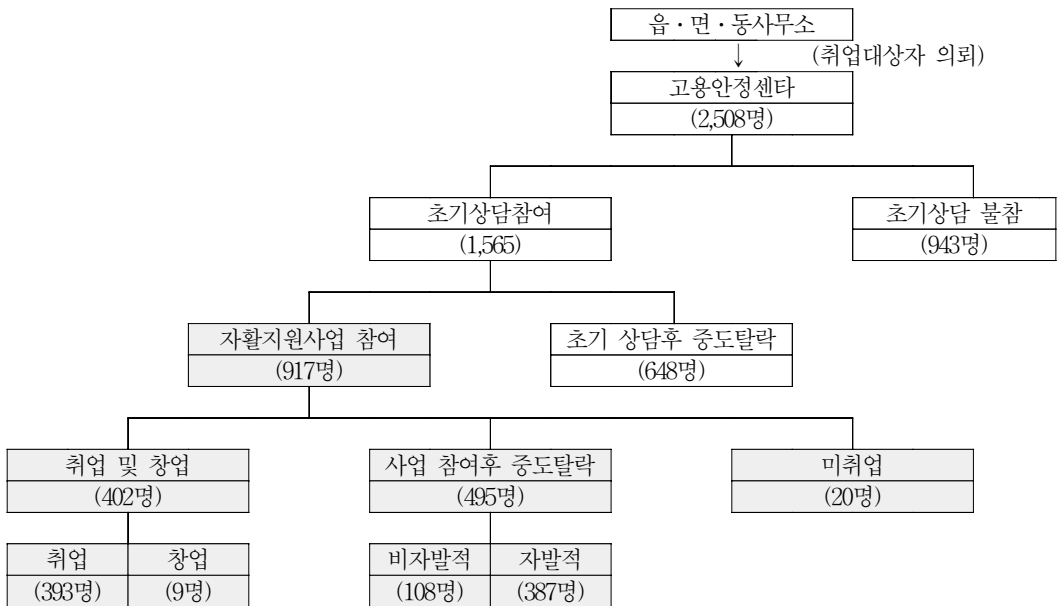
4.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되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의 자활지원사업에 의뢰된 대상자는 모두 2,508명이었다. 그러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초기상담에 불출석한 943명과 초기상담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648명을 제외하면, 자활지원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대상자는 의뢰 대상자의 36.5%인 917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노동부가 예

측한 취업대상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저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자활지원사업에 불출석한 이들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총 91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활의 실태와 이에 관련된 요인들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총 917명의 대상자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시작한 대상자의 수는 402명으로 전체의 4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은 참여대상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노동부에서 보고한 2001년 전국 취업대상자의 자활성공률인 41.5%(노동부, 2002)에 비하면 다소 높은 것이다. 그러나 전체 자활사업 의뢰대상자 대비 경제적 자활에 진입한 대상자의 비율을 구해보면, 그 수치는 16.0%로 그 비율이 자활사업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활의 상태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상자들 중 393명이 취업(97.8%)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창업의 방법을 이용한 대상자는 9명(2.2%)에 불과하였다. 한편 경제적 자활 진입에 실패한 대상자 515명의 자활사업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조건불이행이 241명(46.8%)으로 가장 많고, 소개불명, 연락두절, 진학, 전출 등의 기타 이유가 99명(19.2%), 재심사부적격 66명(12.8%), 계획수립거부 47명(9.1%), 수급권 탈락 42명(8.2%), 미취업 20명(3.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활의 상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대상자 가운데 사업 참여 후 중도에 탈락한 대상자의 수는 495명이고, 그 중 자발적(조건불이행, 계획수립거부, 기타)으로 탈락한 대상자는 387명으로 탈락자 전체의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참여 후에 중도에 탈락하는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수가 많은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아래의 <그림 1>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수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자활지원사업 참여과정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수

<표 3>은 연구대상자들의 자활사업기간, 연령, 교육년수, 가족원수를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분포상의 특징들을 평균과 중간값 및 표준편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0.01세이고, 평균 교육년수는 11.32년이며, 평균 가족원수는 3.23명이다. 한편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상태에 진입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97세로 중도탈락하거나 미취업한 대상자의 29.26세보다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년수도 경제적 자활의 상태에 진입한 대상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1.40년으로 중도탈락이나 미취업한 대상자의 11.26년보다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평균 자활사업기간은 94.14일로 약 3개월 정도인데 그 중 경제적 자활의 상태에 진입한 대상자의 평균 자활사업기간이 91.30일로 미취업자의 96.36일에 비해 다소 짧긴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특성: 사업기간, 연령, 교육수준, 가족원수

		사업기간 (일)	연령 (세)	교육수준 (년)	가족원수 (명)
총대상자 (n=917)	평균	94.14	30.01	11.32	3.23
	표준편차	68.66	9.64	2.49	1.12
	중간값	72.00	27.00	12.00	3.00
	최소값	1.00	18.00	0.00	1.00
	최대값	376.00	58.00	18.00	8.00
취업자 (n=402)	평균	91.30	30.97	11.40	3.26
	표준편차	67.04	9.27	2.55	1.13
	중간값	70.00	31.00	12.00	3.00
	최소값	7.00	18.00	0.00	1.00
	최대값	376.00	53.00	18.00	7.00
미취업자 (n=515)	평균	96.36	29.26	11.26	3.20
	표준편차	69.89	9.86	2.45	1.12
	중간값	74.00	25.00	12.00	3.00
	최소값	1.00	19.00	0.00	1.00
	최대값	360.00	58.00	18.00	8.00

<표 4>는 성, 연령, 학력, 가구주 여부, 최초참여사업, 최종참여사업, 참여사업 개수, 자격증 유무, 건강상태, 취업욕구 등의 변수들에 대해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분포상의 특징을 사례 수와 비율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의 45.3%인 415명이 남성이며, 54.7%인 502명이 여성인 것으로 밝혀져 여성의 자활지원사업 참여가 남성의 참여보다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자활진입률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자활진입률이 50.2%로 남성의 36.1%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구분을 살펴보면, 20대가 456명(49.7%), 30대가 220명(24.0%)로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상자의 대부분이 20~30대인 것은 취업대상자의 선정 및 분류기준에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 그리고 연령에서 30대의 경제적 자활진입률이

4) 근로능력 점수산정은 연령(40점), 건강상태(30점), 직업이력(30점)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점수가 70점 이상의 '상'을 받아야 하는데,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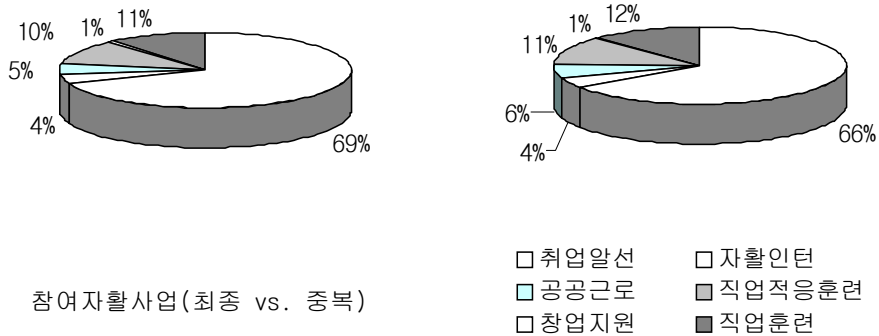
5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력 분포에서는 고졸 학력자가 6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등졸(15.0%), 초등졸(8.2%), 대졸(5.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의 329명이 가구주(35.9%)이며 588명(64.1%)은 비가구주로 가구주의 비중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 별 경제적 자활진입률에서는 가구주의 비율(50.2%)이 비가구주(40.3%)에 비해 약 10%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최초 참여 자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678명(73.9%)이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직업훈련과 직업적응훈련에는 각각 80명(8.7%)과 94명(10.3%)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참여 자활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의 경제적 자활진입률은 46.8%로 직업훈련(38.8%)이나 직업적응(25.5%)보다는 높으나 자활인턴(58.8%)이나 창업지원(66.7%)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사업은 사업이행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들 중 2~3개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서는 오직 1개의 사업에만 참가한 대상자 수가 738명(80.5%)으로 대다수이긴 하지만 2개 사업 그리고 3개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도 각각 144명(15.7%)과 35명(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복으로 참여한 사례까지 포함하여 제공된 자활사업의 빈도를 분석해 보면, 총 1,131사례 중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 738명(65.2%), 직업훈련사업 138명(12.2%), 직업적응훈련사업 129명(11.4%), 공공근로사업 69명(6.1%), 자활인턴사업 49명(4.3%), 창업지원사업 8명(0.7%)의 순으로 구분된다. 한편 대상자들이 최종적으로 참여한 사업, 즉 자활사업이 종료되기 직전에 참여한 사업에 기초해서 분석해 보면,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이 633명(69.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사업 100명(10.9%), 직업적응훈련사업 96명(10.5%), 공공근로사업 44명(4.8%), 자활인턴사업 38명(4.1%), 창업지원사업 6명(0.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참여사업별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의 경제적 자활진입률은 48.0%로 직업훈련사업(27%)이나 직업적응훈련사업(28.1%)보다는 높으나 자활인턴사업(69.4%)이나 창업지원사업(50.0%)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참여한 자활지원사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과 자활인턴사업의 경우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활진입률을 보이나, 2001년부터 수요자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을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새롭게 시작된 직업적응훈련사업과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자활진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논의한 최종참여사업과 중복참여를 기준으로 취업대상자들이 참여한 자활지원사업별 분포를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40점)이 18세에서 35세인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연령으로 간주하여 40점을 배정한다. 또한 36세에서 50세의 대상자는 20점을, 그리고 51세 이상 대상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자활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판정기준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박능후 외, 2001, 99).

<표 4> 일반적 특성: 인구적 변수, 인적자본 변수, 자활프로그램 변수, 건강 및 취업욕구 변수

변수	총대상자		취업자		미취업자		자활 진입률(%)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415	45.3	150	37.3	265	51.5	36.1
	여성	502	54.7	252	62.7	250	48.5	50.2
연령	10대	41	4.5	18	4.5	23	4.5	43.9
	20대	456	49.7	169	42.0	287	55.7	37.1
	30대	220	24.0	118	29.4	102	19.8	53.6
	40대	176	19.2	90	22.4	86	16.7	51.1
	50대	24	2.6	7	1.7	17	3.3	29.2
학력	무학	7	0.8	4	1.0	3	0.6	57.1
	초등졸	75	8.2	32	8.0	43	8.3	42.7
	중등졸	138	15.0	53	13.2	85	16.5	38.4
	고등졸	597	65.1	263	65.4	334	64.9	44.1
	전문대졸	44	4.8	24	6.0	20	3.9	54.5
	대졸	51	5.6	24	6.0	27	5.2	47.1
	대학원졸	5	0.5	2	0.5	3	0.6	40.0
가구주 여부	가구주	329	35.9	165	41.0	164	31.8	50.2
	비가구주	588	64.1	237	59.0	351	68.2	40.3
최초 참여 사업	취업알선	678	73.9	317	78.9	361	70.1	46.8
	자활인턴	17	1.9	10	2.5	7	1.4	58.8
	공공근로	45	4.9	18	4.5	27	5.2	40.0
	직업적응	94	10.3	24	6.0	70	13.6	25.5
	창업지원	3	0.3	2	0.5	1	0.2	66.7
	직업훈련	80	8.7	31	7.7	49	9.5	38.8
최종 참여 사업	취업알선	633	69.0	304	75.6	329	63.9	48.0
	자활인턴	38	4.1	26	6.5	12	2.3	68.4
	공공근로	44	4.8	15	3.7	29	5.6	34.1
	직업적응	96	10.5	27	6.7	69	13.4	28.1
	창업지원	6	0.7	3	0.7	3	0.6	50.0
	직업훈련	100	10.9	27	6.7	73	14.2	27.0
사업 개수	1개	738	80.5	327	81.3	411	79.8	44.3
	2개	144	15.7	61	15.2	83	16.1	42.4
	3개	35	3.8	14	3.5	21	4.1	40.0
자격증 유무	유	366	39.9	156	38.8	210	40.8	42.6
	무	551	60.1	246	61.2	305	59.2	44.6
건강 상태	보통미만	64	8.1	14	4.1	50	11.1	21.9
	보통	27	3.4	11	3.2	16	3.6	40.7
	양호	684	86.4	306	89.2	378	84.2	44.7
	매우양호	17	2.1	12	3.5	5	1.1	70.6
취업 욕구	낮음	42	5.3	10	2.9	32	7.1	23.8
	보통	223	28.2	68	30.5	155	34.5	30.5
	높음	527	66.5	265	77.3	262	58.4	50.3
전체	917명		402명		515명		43.8	



<그림 2> 취업대상자가 참여한 자활지원사업의 종류(최종 vs. 중복)

한편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366명(39.9%)에 이르는데, 이러한 자격증의 소유여부에 따른 경제적 자활진입률은 큰 차이를 갖지 않는 것을 나타냈다. 오히려 자격증을 갖지 않은 참여자들의 자활진입률이 44.6%로 자격증을 갖는 이들의 자활진입률 42.6%보다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자의 86.3%인 792명만이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와 취업욕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728명(91.9%)이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갖고 있고, 취업욕구는 527명(66.5%)이 높은 욕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은 건강하며, 취업욕구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건강상태와 취업욕구에 따른 경제적 자활진입률에서도 건강할수록 그리고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자활진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존도와 위험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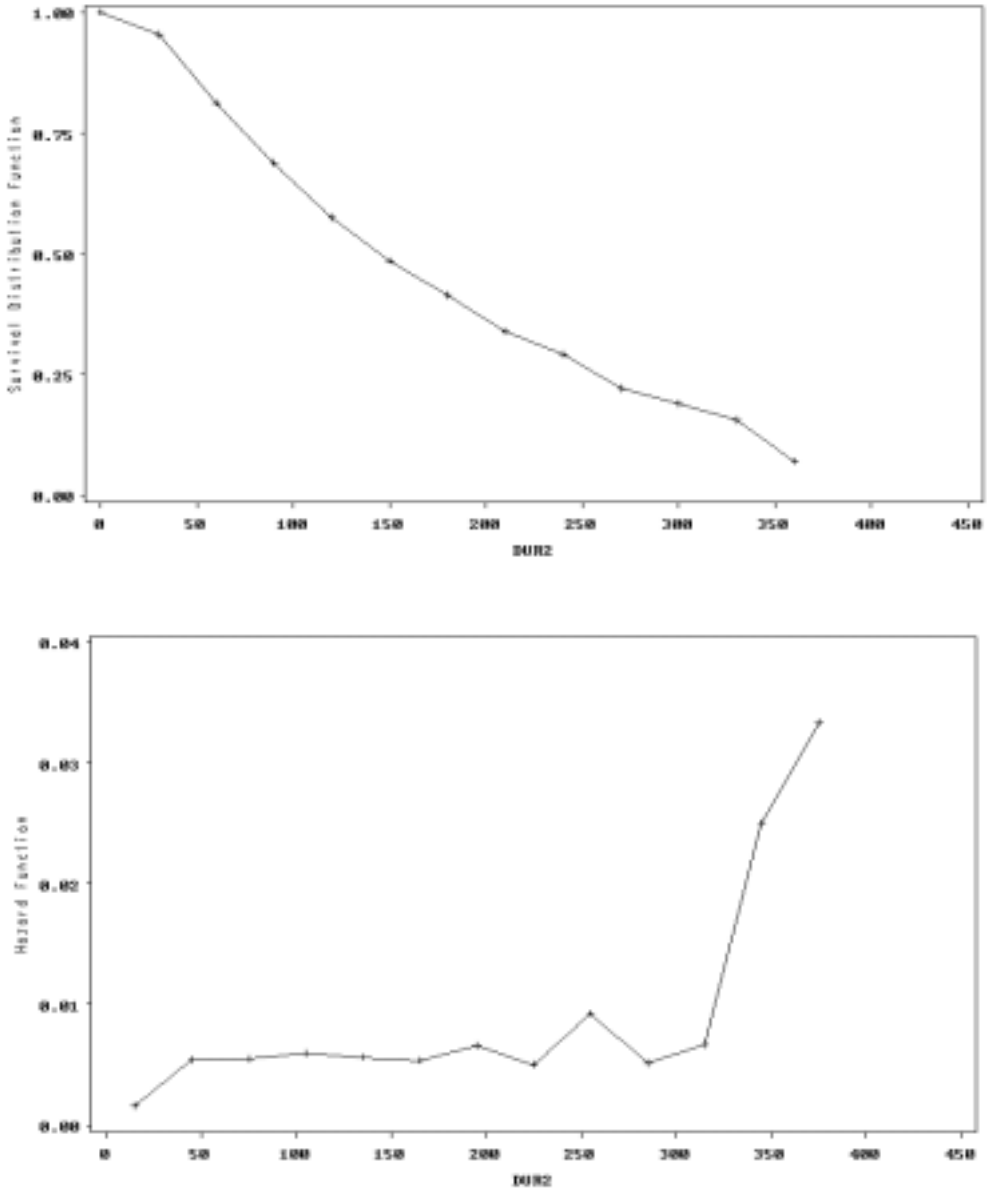
<표 5>는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자활진입까지의 기간 추이에 대한 누적생존율과 경제적 자활진입 위험도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누적 생존율은 자활사업기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최종 기간(360일~390일)의 누적생존율은 0.0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종 누적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이러한 기간동안 일부는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일부는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이전에 중도탈락 등으로 자활사업을 종료(censored)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자활사업기간 내비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활 진입의 확률을 나타내는 경제적 자활진입 위험도는 자활사업을 시작한 이후 30일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0.0015)을 보이나, 30일이 지나면서 증가하여, 240일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0.0050~0.0065)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경제적 자활진입 위험도는 240일에서 270일까지 조금 높은 수준(0.0092)으로 상승하나, 270일에서 330일까지 다시 예전 수준(0.0051-0.0066)으로 유지되며, 330일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30일 이후의 급격한 증가 수치는 사례수가 적은 상황에서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활진입의 확률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30일이 지나면서 증가하여, 240일에서 270일까지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할 뿐, 전 기간에 걸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활사업기간의 추이에 따른 누적생존율과 경제적 자활진입 위험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3>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5> 누적 생존율과 자활진입 위험도

월	기간		자활진입자	Censored	표본수	누적생존율	자활위험도
1	1	30	41	56	889.0	0.9539	0.0015
2	30	60	112	139	750.5	0.8115	0.0053
3	60	90	80	90	524.0	0.6876	0.0055
4	90	120	60	67	365.5	0.5748	0.0059
5	120	150	38	54	245.0	0.4856	0.0056
6	150	180	24	37	161.5	0.4134	0.0053
7	180	210	19	27	105.5	0.3390	0.0065
8	210	240	9	17	64.5	0.2917	0.0050
9	240	270	10	12	41.0	0.2205	0.0092
10	270	300	3	8	21.0	0.1890	0.0051
11	300	330	2	6	11.0	0.1547	0.0066
12	330	360	3	1	5.5	0.0703	0.0250
13	360	390	1	1	1.5	0.0234	0.0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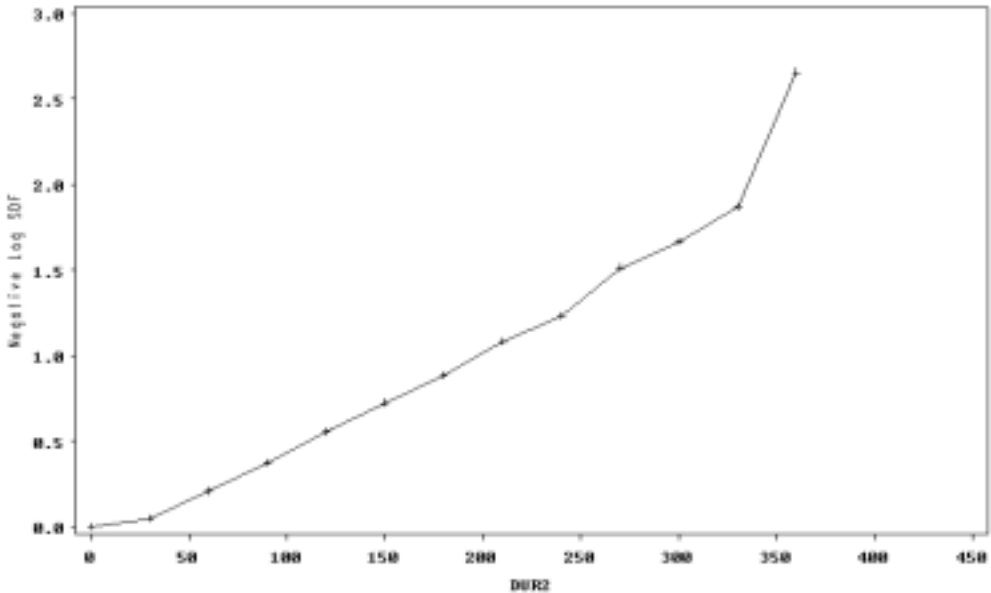


<그림 3> 누적생존율과 경제적 자활진입 위험도 추이

3)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과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본 연구는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이들의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expected du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Accelerated Time Failure(ATF)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대한 생존분석은 Log-normal, Weibull, Exponential, Generalized Gamma 모델 각각의 Log-Likelihood값을 비교하여 Log-normal 모델이 본 연구 대상의 생존확률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 그리고 이러한 모델 선택의 적절성은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부적 로그 생존확률 분포의 추이(negative log survival density function)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Negative Log Survival Density Function의 추이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이들의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expected du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Log-normal 모델 분석 결과는 <표 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표 6>은 각 분석에서 모델 1과 모델 2로 나누어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모델 1은 본 연구의 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고 모델 2는 자활사업종료 사유 중 ‘대상자제외’와 ‘수급권 탈락’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서 중도탈락한 사례(108개)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중도탈락한 사례와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809개 사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5) 각각의 Log-Likelihood값을 비교한 결과, Log-normal 모델(-711.631)이 본 연구의 대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Weibull 모델: -722.169, Exponential, -792.702, Generalized Gamma, -710.376).

과를 정리해 보면,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성별, 가구주 여부, 직업훈련사업을 기준으로 한 최종 참여사업 종류, 건강상태, 취업욕구 등의 변수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적 자활에 진입할 odds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가 아닌 이들이 경제적 자활에 진입할 odds는 가구주인 이들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이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들이 참여한 자활사업에 따라 경제적 자활에 진입할 odds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 그리고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이 경제적 자활로 진입할 odds가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와 취업욕구 변수에서는 건강할수록 그리고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로 진입할 odds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끊임없이 제시되어진 것처럼 자활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심리적인 자활욕구가 경제적 자활에 정적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Log-normal 모델에 기초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성별, 연령, 직업훈련을 기준으로 한 최종 참여사업 종류, 참여사업개수, 건강상태, 취업욕구 등의 변수가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주 여부 변수는 모델 1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교육년수는 모델 2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해석해 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의 기대 자활사업기간, 즉 경제적 자활까지의 진입기간이 남성에 비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경제적 자활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더 많을수록 경제적 자활까지의 진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의 취업이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참여한 최종자활사업 종류 변수의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모델 1과 모델 2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훈련사업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간이 직업훈련에 참여한 대상자의 그것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활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 직업적응훈련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과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다른 사업들에 참여한 대상자들 보다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보다 오랜 기간 자활사업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자활지원사업의 성격과 매우 연관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직업훈련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직업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창업지원사업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간에 대한 Log-normal 분석의 결과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직업훈련사업과 창업지원사업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 진입하는 기대 자활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참여 자활지원사업의 개수 변수는 경제적 진입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대한 Log-normal 분석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참여 사업수가 더 많을수록 경제적 자활로 진입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경로의 변경이 취업대상자의 빠른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로를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건강상태 변수와 취업욕구 변수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까지의 기간이 짧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과 취업욕구 변수의 경우,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도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활지원사업 참여자들 가운데 ‘재심사 부적격’과 ‘수급권탈락’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중도탈락한 대상자들을 제외한 Model 2의 분석결과에서는 교육년수 변수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인적자본이론의 주요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빈곤층의 취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는 오히려 고학력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모델 2에서는 가구주여부 변수의 유의미성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주변수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교육년수나 자격증 유무와 같은 인적자본 관련 변수들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 그리고 경제적 자활진입까지의 기간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러나 건강과 취업욕구 등의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 그리고 경제적 자활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 등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증적인 비교가 취약했던 참여 자활사업 종류 변수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 그리고 경제적 자활진입까지의 기간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고, 기대 자활사업기간은 상대적으로 더욱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는 보다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자의 인적자본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 학력과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 변수는 자격증 소지의 유무 보다는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 구성상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인적자본과 관련한 실제적인 변수의 선정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6> 경제적 자활여부와 자활사업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Logistic Regression				Log-Normal Survival Analysis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남성)	0.523 ***	0.146	0.547 ***	0.154	-0.347 ***	0.067	-0.302 ***	0.065
연령	0.008	0.010	0.010	0.011	0.015 ***	0.004	0.015 ***	0.004
교육년수	0.006	0.029	-0.001	0.031	0.022	0.013	0.029 *	0.012
가구주여부(가구주)	-0.590 **	0.216	-0.570 *	0.228	0.246 *	0.096	0.176	0.092
가족수	0.076	0.068	0.091	0.073	-0.054	0.031	-0.057	0.030
최종참여사업종류								
취업알선	1.779 ***	0.439	1.878 ***	0.494	-0.409 ***	0.122	-0.347 **	0.122
자활인턴	0.211	0.411	0.645	0.473	-0.450 *	0.187	-0.371 *	0.182
공공근로	0.027	0.336	-0.130	0.349	-0.464 *	0.192	-0.727 ***	0.201
직업적응훈련	0.867	0.901	1.833	1.233	-0.429 **	0.163	-0.378 *	0.160
창업지원 (직업훈련)	0.883 ***	0.257	0.773 **	0.273	-0.619	0.393	-0.796	0.414
(직업훈련)	--	--	--	--	--	--	--	--
참여사업개수	-0.081	0.163	-0.057	0.176	0.666 ***	0.073	0.669 ***	0.071
자격증유무 (유)	0.107	0.150	0.099	0.159	0.023	0.068	0.047	0.066
건강상태	0.607 ***	0.147	0.564 ***	0.152	-0.226 ***	0.067	-0.182 **	0.065
취업욕구	0.612 ***	0.132	0.616 ***	0.140	-0.188 **	0.061	-0.160 **	0.059
상수	-4.737 ***	0.804	-4.411 ***	0.849	4.997 ***	0.360	4.581 ***	0.349
Scale					0.807	0.029	0.756	0.027
Log-Likelihood	-1141.335		-1019.102		-711.631		-647.078	
사례수	917		809		917		809	

* p < 0.05, ** p < 0.01, *** p < 0.001

()는 reference category 임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자활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활이나 자립을 논하기 위해서는 취업 및 창업 등을 통한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진입 후 고용상태의 유지, 안정적인 임금의 지속적인 유지 등을 포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료 구성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이처럼 포괄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자활에 대한 효과를 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활까지의 여정에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취업 및 창업 현상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서울시의 조건부수급자 917명의 자료에 기초해서 경제적 자활로 진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러한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 및 창업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졌던 인구·사회학적인 변수, 인적자본관련 변수, 건강상태와 취업욕구 변수,

그리고 지금까지 실증적인 분석이 취약했던 참여 자활지원사업 종류 변수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와의 관계 및 경제적 자활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대상자의 자활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의뢰된 취업대상자 중 상당수가 초기상담과정에 불출석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917명(의뢰대상자의 36.5%)에 불과하다. 이처럼 조건 충족을 위한 초기상담에 불출석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격의 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대상자의 선정과 분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직업상담원간의 사례 의뢰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상자의 자격 판단 기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을 마련하거나 공동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박능후 외, 2001: 99). 또한 이미 많은 예산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취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도 기대할만 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보면, 연령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의 49.7%가 20대에 속하고, 학력에 있어서는 65.1%가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으며, 가구주의 비율은 35.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이 참여한 자활지원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상자의 65.2%가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19.5%가 2가지 이상의 사업에 자활사업 경로를 변경하며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88.5%가 양호하고, 취업욕구는 66.5%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성공한 대상자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43.8%인 402명에 불과하며, 중도 탈락한 대상자의 수는 515명(56.2%)으로 경제적 자활에 진입한 대상자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활지원사업의 추진기간이 짧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처럼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사업의 중도에 탈락한다는 사실은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이 대상자들이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만큼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2002년까지 유보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의 보다 빠른 도입과 확대를 통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따른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대상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노동시장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활사업대상자는 실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므로, 자활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상담사업과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사업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단, 2001).

넷째,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자활사업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활로 진입할 가능성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증가하여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첫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여성, 가구주,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참여한 대상자, 대상자의 양호한 건강상태, 그리고 높은 취업욕구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이나 자격증 소유여부와 같은 인적자본 관련 변수들은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의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Log-normal 생존모델의 분석 결과도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였다. 자격증 소유여부와 같은 인적자본 관련 변수들은 경제적 자활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으며, 대상자가 건강할수록 그리고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짧은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고령대상자들이 다른 연령집단의 대상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자활사업기간을 가지며 보다 느리게 자활사업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보다 특성화된 자활지원사업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이 연령집단의 대상자들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인적자본도 부족하고, 오랜 기간 빈곤상태를 경험하여 구직욕구도 낮으며, 경제적으로 자활에 성공하여도 다시 빈곤상태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 집단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동시에 자활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자활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장년층 대상자들만을 위한 공공 혹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인적자본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이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이나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건강상태나 취업욕구가 높을수록 빠르게 경제적 자활에 진입하는 것으로 밝혀져 기존연구들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건강한 상태와 심리적인 측면의 자활의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조건부수급자들이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는데 있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사업이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의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과정에서 직업훈련사업의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직업훈련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직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경제적 자활 진입까지의 기대 자활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 자활의 진입여부에도 부적인 방향에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은 직업훈련사업의 운영에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사업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참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급속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합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동시에 오랜 자활사업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질 때, 직업훈

련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활의 개념에 대한 구성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자활의 성공은 취업과 창업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수입을 일정 기간 이상동안 유지하는 것을 내용을 할 때, 이 개념의 실질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제적 자활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동시에 보다 포괄적으로 혹은 보다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빈곤한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활로의 전이 현상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활과 관련해서 자활로의 진입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실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자활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지식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2차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본 연구의 자료 구성의 제한성으로 인해 변수 선택 등에서 제한성을 지녔고 자활현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되는 후속연구들은 경제적 자활이라는 현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결과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연구의 결과들이 자활사업에 대한 한국적 이론의 정립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자활사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pp. 23-50.
- 강병구·이상훈. 2002.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강철희. 1997. “자활보호가구의 자활보호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피와 탈피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생존표 분석을 이용한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1호, pp. 87-118.
- 김수현. 2001. “저소득 여성가구를 위한 자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실천과제”, 발표논문. 성동 여성자활촉진 모임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 세미나.
- 노동부. 2000. 『노동부 자활지원사업』.
- 노동부. 2002.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2002년 자활지원사업 안내』.
- 박능후·노대명·최현수. 2001. 『취업대상자 특성별 자활프로그램 제공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병현. 1997.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2호, pp. 45-67.
- 국미애·김홍 미리·안경연·유연정·윤박 경. 2001. “저소득층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 발표논문. 여성자활연구모임.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 Danzinger, Sandra, K. et. al. 2000.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Unpublished Research Paper, Poverty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Kalil, Ariel. Corcoran, Mary E., and Danzinger, Sandra, K. et. al.. 1998. “Getting Jobs, Keeping Jobs, and Earning a Living Wage: Can Welfare Reform Work?,”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170-98, Poverty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 Kessler, R. C., Turner, J. B., and House, J. S. 1987. “Intervening Proc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Psychological Medicine*, vol. 17, pp. 949-961.
- Martinson, Karin. 2001. “The Experiences of Welfare Recipients Who Find Jobs,” Unpublished Project Report Paper,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enter.
- Olson, K., and Pavetti, L. 1996. “Personal and Family challenges to the Successful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Unpublished Paper of The Urban Institute.

A Study of Labor Entry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 An Exploration of the Predictors

Kim, Kyo-Seong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ork, SoongSil University)
Kang, Chul-Hee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labor entry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This paper focuses on two questions. First, what is the percentage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who have labor entry? Second, what are the predictors in the labor entry and the duration to the entry? Using Data about 917 welfare recip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of the Offices for Secure Employment in Seoul,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survival analysis are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labor entry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This paper also utilizes a multiple imputation method to deal with the limitation of data by the missing values in some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bout 43.8% of the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have successful labor entry; and in the labor entry and the duration to the entry, gender, household,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for employment, health and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re the predictors tha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se variables, health and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re more noticeable; it is recognized that programs to care for health of welfare recipients who want to have the labor entry and counseling programs to strengthen welfare recipients' willingness for labor entry are very important for them to be successful in the labor entry. This paper provides a basic knowledge about realities of the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labor entry, identifies research areas for further research, and develops policy implications for their self-sufficiency.

Kim Kyo-seong	Kang Chul Hee
02-820-0509	02-3277-3449
kyoseong@ssu.ac.kr	chulhee@mm.ewha.ac.kr

[접수일 2002.10.2 게재확정일 2002.12.17]